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4년제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홍성애 · 이진희*[†]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University's Curriculum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for Activating Fashion Business

Sung-Ae Hong · Jinhee Lee*[†]

Dept. of Apparel & Fashion Business, Hansu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접수일(2011년 9월 19일), 수정일(2011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ducational curricula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to provide som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more appropriate educational courses and to activate the fashion business. A total of 82 different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and apparel were selected from four-year domestic universities and the curricula recently posted on their internet website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More than half (53.7%) of the 82 departments were offering classes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for 3 credits and 4 class hours. College affiliation of the departments that offered curricula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was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the arts (34), human ecology (22), natural sciences (14), humanities/culture (9), and others (3). Human ecology category showed the highest results in the average class hours (3.9), the number of classes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7.6), and the percentage of the classes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out of all major classes offered by the clothing department (19.9%). All 82 department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of: fashion design (32), clothing (28), and fashion business (22). The clothing category showed the highest results in the average credits (2.8), class hours (3.8), the number of classes offered by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7.6), and the percentage of the classes that offer clothing construction education out of all major classes offered by the clothing department (19.9%). The educational contents of clothing construction area were classified into 8 different categories of: basic theory and sewing, clothing construction, flat pattern, draping, tailoring and advanced clothing construction, pattern CAD, sewing science and apparel manufacturing process, and clothing construction for special needs. Among these categories, the draping category constituted 21.7% as the largest part.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classes offered by 4 academic years were analyzed into 8 different categories.

Key words: Clothing construction, Curriculum, 4-year domestic university, Apparel, Fashion; 의복구성, 교육과정, 4년제 국내 대학, 의류, 패션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hlee@wku.ac.kr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I. 서 론

의류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의류제품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며 그러한 공정은 의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의류학의 학문분야는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복구성, 의류소재, 복식사 등 다양한 세부 분야들의 학문영역을 포괄하는 복합학문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복구성분야는 최근에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3D 디지털 패션테크놀로지 접목, CAD/CAM/CIM 등으로 의류제품 개발 공정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관련 학문의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의류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글로벌 패션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Vendor의 영업부가 외국 패션업체의 B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 해당 의류제품의 가장 좋은 fit을 창출하기 위한 테크니컬 디자이너 역할의 전문성도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의복구성 교육과정도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교과목 내용에 포함하거나 신설과목 개발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복구성분야는 Kim(2000)의 연구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 모두 중요하게 인식한 교과목이며, Ju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의 교과목 구성 비율 조사에서 의복구성분야가 포함된 제품생산 관련 과목(한복 포함)이 디자인(36.2%) 다음으로 20.4%를 나타내어 높은 편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자 및 대학교육 모두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지하고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빠른 패션산업에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의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필요성 및 중요한 변화가 다각도로 요구되는 교과목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의류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복합학문으로서의 의류학 분야 전체(Kim, 1996; Ku et al., 1999; Rah et al., 2008) 또는 마케팅(Lee & Park, 2007; Lee, 2002; Lee, 2003a, 2003b; Lee & Lee, 2007), 패션머천다이어 교육(Chun, 2000; Shin, 2001), 패션비즈니스 교육(Han et al., 2011), 패션소매경영과정(Jung, 2009)

및 디자인(Cho, 2010; Choo, 1997; Kim, 1999; Park, 2005), 패션드로잉(Chang, 1997), 일러스트레이션(Joung & Park, 1997; Kim, 2008), 의류소재 교과목 분석(Ju et al., 2011) 등 의류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가 주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Ju et al., 2011; Kim, 2000)를 통해 중요한 세부분야로 나타난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CAD(Choi et al., 2004; Choi, 1993; Kim & Lee, 1999; Lee, 2004; Lee, 2005) 및 패턴(Lee & Han, 1999), 의류생산 자동화(Jo, 1992)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이는 의복구성분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의복구성분야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의복구성분야는 다양한 의류제품 개발을 위한 각 단계별 전체 생산공정과 관련된 분야로서 착의 기계인 인체의 체형분석 및 다양한 소비자 치수 체계에 대한 이해, 평면/입체패턴, 다양한 의류제품의 복잡한 단계별 제작 기법, 패턴 CAD/대량생산공정 등 다양한 교과과정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이러한 의복구성분야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 연구가 수행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의복구성분야의 다양한 교과목들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각 대학에서 의복구성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의상, 의류, 패션 관련 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4년제 81개 대학의 86개 학과·전공들로 하였으나, 본 연구목적이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이므로, 조사대상 학과들 중에 의복구성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4개 학과를 제외한 총 82개 학과·전공 자료를 최종 자료로 연구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1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료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교과과정,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대학편람 등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시된 자료가 없는

대학이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학과사무실에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선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 외에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인체분석과 관련된 교과목들(인체와 의복, 피복인간공학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성복 생산과 관련된 의류생산공정 및 봉제와 관련된 이론과목인 봉제과학 관련 교과목도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 및 학과에서 해당 과목을 그 학과의 교과목 연계도 등에서 의복구성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인과 의복구성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교과목들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들의 교과목 설명 및 개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대학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고 일관된 의복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 자료분류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의 소속지역 분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경기,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제주도로 구분하였다. 이때, 대학 자체의 명칭 보다는 현재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은 대학명에 대구란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소재지

가 경상북도 경산시로 되어 있어서 대구가 아닌 경상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는 경북대와 계명대 2개 대학만 있었고, 그 외 대부분의 대학들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소재지에 따라 경상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본 캠퍼스는 서울에 있지만 해당 학과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므로 명지대의 경우는 경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전공의 전국 지역별 분포 및 소속 대학별 의복구성 교과목의 편성비율 및 의복구성 교과목군의 분포 등의 비교를 위하여 의복구성분야 교수 2인이 해당 자료들을 분류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의 기술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전공의 전국 지역별 분포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전공들의 전국 지역별 분포(Fig. 1)를 볼 때 Seoul(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여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Seoul(서울)·Gyeonggi-do(경기도)·Incheon(인천)의 수도권에 37.8%로 나타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Fig. 1. Regional distribution of departments offering clothing construction courses.

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볼 때는 서울과 Busan(부산) 2개 도시에 33%나 편중되어 있어 전국의 1/3을 차지하였다. 또한 부산, Daegu(대구) 등을 포함한 경상남북도 전체의 비율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28%를 나타내어 섬유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10개의 각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Gyeongsang-do(경상도), Chungcheong-do(충청도), Gyeonggi-do(경기도)가 각각 13.4%를 차지한 반면, Jeolla-do(전라도) 8.5%, Gangwon-do(강원도)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적 분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의 학점평균/시수평균별 분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전국 82개 학과·전공들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에 대한 학점평균/시수평균 분포를 <Fig. 2>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과·전공들이 2학점/3시간 또는 3학점/4시간과 같이 시수가 학점보다 1시간 더 많게 운영되는 경우로 나타나 전국의 의류 관련 학과·전공들의 72%에 달하였다. 그중에 53.7%에 달하는 많은 학과·전공들이 3학점/4시간의 형태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특성상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수업 형태가 많은 것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2학점/4시간의 형태나 3학점/6시간의 형태와 같이 시수가 학점의 2배로 운영되는 학과·전공들은 전국의 9.7%로 아주 소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보다 강도 높은 실기수업을 위한 것으로 예측되나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및 학점/시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학점대비 시수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Distribution of the average credits/class hours.

3.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 수의 분포

의복구성분야로 개설된 교과목의 개수 분포를 나타낸 <Fig. 3>을 살펴보면 1과목만 개설한 학과·전공부터 13과목을 개설한 학과·전공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에 7과목을 개설한 학과·전공들이 22곳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26.8%를 차지하였고, 6과목을 개설한 곳은 15개 학과(18.3%), 5과목을 개설한 곳은 11개 학과(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5~7과목을 개설한 학과들을 모두 합하면 전국 총 48개 학과로 전국의 1/2 이상인 58.5%를 차지하였다.

또한 4개 이하의 교과목을 개설한 학과들은 모두 10개 학과들로 12.1%를 보였으며, 8~13과목을 개설한 학과들을 합하면 모두 24개 학과들로 29.2%의 분포를 보였다. 1~3과목, 11~13과목을 개설한 학과·전공들은 1곳 또는 2곳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4. 소속 단과대학군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분포

본 연구 조사대상인 의류 패션 관련 학과·전공들에 대해 소속 단과대학군별 교과목 편성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Ju et al., 2011; Rah et al., 2008)에서 분류한 단과대학군을 참고로 하여, 유사한 단과대학명들을 Art(예술), Human ecology(생활과학), Natural science(자연과학), Humanities/Culture(인문/문화), Miscellaneous(기타)와 같이 5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예술군에는 예술대학,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패션대학 등이 포함되었고, 생활과학군은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연과학군에는 자연과학대학, 이과대학, 이공대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문/문화군에는 인문예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화관광대학 등

Fig. 3.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lasse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각 단과대학군의 소속 학과 구성수를 파악해 보면 예술군에 34개, 생활과학군에 22개, 자연과학군에 14개, 인문/문화군에 9개의 학과·전공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속대학군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의 학점, 시수, 개설 교과목수와 같은 3항목을 각각에 대한 평균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각 소속 단과대학군별로 분석한 결과, 생활과학군에서 시수평균이 3.9,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수는 7.6개로 다른 단과대학군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과목들의 학점평균은 인문/문화군에서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단과대학군에 비하여 이론과목 개설 비율이 실습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 전체 교과목에 대한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들의 편성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소속 단과대학군별 평균으로 분석해 본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편성 비율을 나타낸 곳은 생활과학군으로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비율의 학과·전공 전체 개설 교과목들의 19.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연과학군이 17.9%, 인문/문화군 17.7% 순으로 나타났고, 예술군이 16.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성 비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예술군에 속한 학과·전공 수는 34개로 다른 단과대학군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균학점, 평균시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개설수, 전공 전체 개설 과목수에 대한 의복구성분야 과목 편성 비율 4가지 항목 모두 다른 단과대학군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활과학군은 예술군에 비하여 소속 학과·전

Fig. 5. Clothing construction field class percentage of clothing department classes offered.

공 수는 22개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평균시수,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개설수, 전공 전체 개설 과목수에 대한 의복구성분야 과목 편성 비율 3가지 항목에서 다른 단과대학들에 비하여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5. 학과·전공군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분포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전국 대학들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학과(전공)명별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들에 대한 시수평균, 학점평균,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개설 수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군에는 32개 학과가 포함되었고, Clothing(의류)군에 28개 학과, Fashion Business(패션비즈니스)군에 22개 학과가 포함되었다. 3개의 각 군으로 분류된 학과(전공)들 명칭을 살펴보면, 패션디자인군에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등이 포함되었고, 의류군에 의

Fig. 4.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according to college affiliation.

Fig. 6. Class characteristics in clothing construction fields for department classification.

류학과, 의상학과, 의류환경학과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패션비즈니스군에는 패션산업, 의류상품, 의류패션산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Rah et al.(2008)의 선행연구에서 62개 대학 65개 전공을 선정하여 패션 관련 학과 전공 전체 교과과정을 의류·섬유과학, 의복구성 및 설계,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패션마케팅, 복식문화사와 같이 세부 분야로 분류한 후, 각 세부 분야별 교과목을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의 3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점평균 및 시수평균에서는 각 군별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패션비즈니스군에서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 수가 5.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의류군은 평균학점 2.8, 평균시수 3.8,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수 7.6로 다른 군들에 비하여 각 항목별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공 전체 교과목에 대한 의복구성 교과목 편성 비율에 대한 본 연구대상 82개 전국 학과들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던 반면에, 의류군은 19.9%로 전국 평균보다 2.4% 정도 더 많은 편성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패션비즈니스군은 13.2%로 전국 평균보다 4.3%가 낮은 편성 비율을 나타내어 의복구성분야의 실기과목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이론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그룹별 분석

의복구성분야의 매우 다양한 교과목들을 교육내용이

유사한 과목들끼리 분류하여 크게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Pattern Development, Advanced Apparel Production의 3개 대그룹으로 분류 후, 8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 그룹별 대표적 과목명들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대그룹에는 Theory & Sewing(기초이론 및 기초봉제), Apparel production(의복구성)의 2개 세부 그룹이 포함되었다. 또한 Pattern Development 대그룹에는 Flat pattern(평면패턴), Draping(입체패턴), Pattern CAD(패턴 CAD)와 같이 3개의 세부 그룹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Advanced Apparel Production 대그룹에는 Tailoring(테일러링 및 고급의복구성), Apparel production process(봉제과학 및 의류생산공정), Clothing for special needs(특수의복구성)의 3개 세부 그룹들이 포함되었다. 3개의 대그룹별 분포를 보면 Pattern development가 48.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이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Advanced apparel production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에 대한 3개의 대분류 각각에 대한 세부 그룹 8개 각각의 내용이 차지하는 분포를 보면 입체패턴군이 21.7%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의복구성군(18.1%), 평면패턴군(17%), 기초이론 및 기초봉제군(12.6%), 테일러링 및 고급의복구성군(11.9%), 패턴 CAD군(9.9%), 특수수의복구성군(4%), 봉제과학 및 의류생산공정군(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 CAD나 의류생산공정 등의 앞으로 빠른 패션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업

Table 1. Class classification in clothing construction fields

(N=548)

Classification of classes		Name of Classes	N (%)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Theory & sewing	Basic sewing, human factors & clothing, fashion sewing, human body & clothing, human ergonomics, introduction to sewing methods, principles of clothing construction, basic sewing technology, interesting basic sewing, apparel sewing, body measurement for clothing, et al.	69 (12.6)	168 (30.7)
	Apparel production	Apparel construction, clothing construction, formation of western clothing,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practice, construction of clothing, practice of clothing, planning of clothing construction, apparel making practice, et al.	99 (18.1)	
Pattern Development	Flat pattern	Basic pattern making, pattern drafting, pattern making, flat pattern design, trend pattern making, pattern development, pattern development of sportswear, flat pattern for fashion design, construction of clothing pattern, flat pattern making, the technique of pattern making, pattern development, et al.	93 (16.9)	266 (48.5)
	Draping	Fashion draping, draping for fashion design, basic draping, creative draping, draping practice, draping for apparel design. et al.	119 (21.7)	
	Pattern CAD	Cad pattern design, pattern cad, computer-aided flat pattern design, apparel pattern cad, et al.	54 (9.9)	
Advanced Apparel Production	Tailoring	Tailoring, advanced clothing construction, advanced assembly techniques, advanced apparel construction, tailoring technique, men's wear, et al.	65 (11.9)	114 (20.8)
	Apparel production processing	Apparel industry, apparel product manufacturing & management, scientific sewing, fashion product processing, apparel production, apparel manufacturing & cad, et al.	22 (4.0)	
	Clothing for special needs	Functional clothing, constructions for special costume, study of sportswear, practice in clothing sensibility ergonomics, apparel engineering & pattern development, apparel production & internship, apparel technology, et al.	27 (4.9)	

그레이드된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교과목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은 학부 교과과정에서 3D 디지털 패션테크놀로지를 독립된 교과목으로 신설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패턴 CAD 과목에서 일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복구성분야 교과목들을 3개의 대그룹 및 8개의 세부 그룹별 학년 편성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548개 교과목들 중에서 3학년이 209(38.1%)로 가장 높은 편성 분포를 보였고, 2학년에서 197(36%), 4학년 75(13.7%), 1학년 67(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그룹별 분류에 따른 학년별 편성 비율을 살펴볼 때 1학년 중에서는 Theory & Sewing(기초이론 및 기초봉제)이 43(64.2%)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2학년 중에서는 Apparel production(의복구성)이 76(38.6%)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학년 중에서는 Draping(1, 2로 분리된 경우 두 과목으로 합산)이 89(42.6%)

로 절대적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4학년 중에서는 Pattern CAD가 27(36%)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과목이어도 학년별 개설 분포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 전체에 대한 소속 단과대학군별 개설 비율을 <Fig.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예술군에서 38.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과학군에서 31%, 자연과학군 17.5%, 인문/문화군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소속 학과·전공 수가 많은 단과대학군 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속 단과대학군별로 유사 교과목군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군에서 입체패턴군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특히 예술군에서는 입체패턴군이 25.1%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나타냈다. 생활과학군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복구성군이 가장 높은 분포율(20%)을 나타내었다. 단과대학군별 의복구성 분

Table 2. Class distribution offered each academic year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N=548, Unit: N (%))

Class classification		Academic Year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Theory & sewing	43 (64.2)	21 (10.7)	4 (1.9)	1 (1.4)
	Apparel production	15 (22.4)	76 (38.6)	8 (3.8)	-
Pattern development	Flat pattern	6 (9.0)	58 (29.4)	23 (11.0)	6 (8.0)
	Draping	1 (1.5)	26 (13.2)	89 (42.6)	3 (4.0)
	Pattern CAD	-	3 (1.5)	24 (11.5)	27 (36.0)
Advanced apparel production	Tailoring	1 (1.5)	6 (3.1)	48 (23.0)	10 (13.3)
	Apparel production process	-	5 (2.5)	5 (2.5)	12 (16.0)
	Clothing for special needs	1 (1.5)	2 (1.0)	8 (3.8)	16 (21.3)
Sub total		67 (100)	197 (100)	209 (100)	75 (100)
Total		67 (12.2)	197 (36.0)	209 (38.1)	75 (13.7)

Fig. 7 Total class distribution offered by college classifications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야에서의 유사과목을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입체 패턴군이나 의복구성군이 주된 교육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의복구성분야는 대학에서의 교육대상자 및 대학교육 편성 비율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복구성분야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 연구가 수행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패션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새로운 직업군 등장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전국 82개 학과 및 전공에 대하여 의복구성분야 교육과정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여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각 대학의 관련 교과과정 개편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8. Similar class distribution offered by college classifications.

1.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전공의 전국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37.8%,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경상남북도 전체 지역에 28%로 높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강원도(1.2%), 전라남북도(8.5%)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적인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의 학점평균/시수평균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53.7%에 달하는 많은 대학들이 3학점/4시간의 형태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복구성분야의 특성상 이론과목보다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3.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개설 수는 1과목부터 13과목까지 학과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5~7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 총 48개 학과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전국의 58.5%를 차지하였다.

4. 의복구성분야 과목이 개설된 학과들의 소속 단과대학들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 유사한 대학명별로 분류한 결과 예술, 생활과학, 자연과학, 인문/문화, 기타의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소속 대학군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생활과학군에서 시수평균(3.9), 의복구성분야 개설 교과목 수(7.6), 전공 전체 교과목에 대한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비율(19.9%) 세 항목이 다른 단과대학군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학과·전공군별 의복구성분야 교과목 편성 분포는 유사한 학과 및 전공명별로 분류하여 패션디자인군(32개 학과), 의류군(28개 학과), 패션비즈니스군(22개 학과)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살펴본 결과, 의류군은 평균학점 2.8, 평균시수 3.8, 의복구성분야 교과목수 7.6, 전공 전체 교과목에 대한 의복구성 교과목 편성 비율 19.9%로 모든 4개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6.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들을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 Pattern Development, Advanced Apparel Production의 3개 대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Pattern Development에서 4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를 기초이론 및 기초봉제, 의복구성, 평면패턴, 입체패턴, 테일러링 및 고급의복구성, 패턴 CAD, 봉제 과학 및 의류생산공정, 특수 의복구성 등과 같이 모두 8개 세부 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입체패턴군이 21.7%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유사 교과목 그룹별 학년 편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같은 교과목이

도 학년별 개설 분포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의복구성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 연구를 한 결과, 이론과 실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학점 대비 시수로 편성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교과목 편성 중 입체재단 과목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디자인요소와 fit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교과목이므로 Technical Designer 역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패션산업시대를 고려할 때 스포츠·레저산업의 활성화, 3D 디지털 패션테크놀로지의 접목, 다양한 기능성 원부자재의 개발 등에 따른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의류제품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대학에서의 의복구성분야 교육내용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과목 개편 및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교과목의 내용 및 과목명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 의복구성분야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후 비교분석하였으나 향후 실제 의류산업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복구성분야의 대학교육 실무활용도 및 증진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복구성학 분야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 학계 및 산업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학문명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습적인 표현대로 clothing construction이라고 사용하게 된 점을 제한점으로 생각하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학문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ang, D. R. (1997). A study on the basic education program of fashion drawing. *Fashion Business*, 1(1), 84-98.
- Cho, J. M. (2010). Development of contents in fundamental design education for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8), 1265-1276.
- Choi, M. S., Cho, H. J., & Ahn, H. J. (2004). Investigation on the education effect and recognition of apparel pattern CAD system on the apparel major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1), 1-10.
- Choi, H. J. (1993). Trends of computer aided design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programs in U.S.A.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 Textiles*, 17(4), 638–647.
- Choo, T. G. (1997). A study of fashion and textile design education in the U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3, 55–71.
- Chun, H. J. (2000). The direction for fashion merchandising education. *Fashion Business*, 4(1), 87–96.
- Han, Y. H., Jung, J. E., & Lee, C. W. (2011). Curriculum development for fashion business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Fashion Business*, 15(1), 1–19.
- Jo, J. S. (1992). Teaching about automation in the clothing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9, 75–81.
- Joung, H. O., & Park, S. H. (1997).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fashion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6(1), 65–77.
- Ju, J. A., Ryu, H. S., & Kim, H. A. (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to industrial 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3), 325–335.
- Jung, H. J. (2009). Study of fashion retail management curriculum: 4-year colleges in Korea and the USA. *Fashion Business*, 13(1), 34–50.
- Kim, H. E. (1999). A study on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for the dept. of fashion desig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6, 89–107.
- Kim, H. Y. (2000). A study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curriculum in clothing and textile studies: Based on the sample of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0(2), 81–95.
- Kim, M. H. (2008). Fashion illustration curriculum an analysis in pursuit of better desig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6), 115–122.
- Kim, S. H. (1996). A report on the fashion education in Ita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7, 147–162.
- Kim, S. H., & Lee, S. J. (1999).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apparel cad education in clothing departments in domestic colle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1), 26–33.
- Ku, Y. S., Kim, J. W., Park, K. G., Park, K. H., & Choo, T. G. (1999). Analysis of fashion curriculum in 4-year colleges: Cross-national comparison of Korea, USA, UK, Japan, & Hong Ko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1), 19–32.
- Lee, J. S., & Han, G. H. (1999). A study to improve the linkage between apparel industry and a university education on clothing construction: Focus on process of pattern making.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6), 972–984.
- Lee, S. H., & Park, S. K. (2007). A globalization-focus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in fashion marketing are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graduate school's fashion marketing curricul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3), 420–432.
- Lee, Y. J.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marketing education between Korea and USA (Part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5), 727–736.
- Lee, Y. J. (2003a).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marketing education between Korea and USA (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2), 169–176.
- Lee, Y. J. (2003b).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marketing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6), 725–734.
- Lee, Y. J.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f cad education and key success factors in Korea, Japan, Germany and USA (Part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1), 1448–1457.
- Lee, Y. J. (2005). A comparative analysis of cad education and key success factors in Korea, Japan, Germany and USA (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1), 46–57.
- Lee, Y. R., & Lee, M. Y. (2007). A comparison between the fashion marketing field in university curricula and in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5), 123–139.
- Park, T. Y. (2005). A study on the situation of fashion design education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5), 585–594.
- Rah, S. I., Kwon, H. S., & Lee, J. S. (2008). Analysis of the major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urses. *Fashion Business*, 12(5), 54–66.
- Shin, K. H. (2001). Job analysis for fashion merchandise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2), 191–205.